

# 수입차 업체들, 사회공헌 '글쎄'

최근 5년간 영업이익 8.2배 ↑

기부금 지난해 44억원  
영업익 대비 비율 0.86%  
2011년 1.35%보다 떨어져

폭스바겐, 작년부터 없애

수입차 업체들이 지난 5년간 매출과 수익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기부금 규모는 미미해 국내 사회 공헌에 인식 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 코리아 등 주요 수입차 브랜드 10개사의 지난해 총 매출은 11조3652억원으로 2011년 매출 총 5조214억원보다 2.3배 성장했다. 연간 총 영업이익은 2011년 626억원에서 지난해 5163억원으로 8.2배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독일 브랜드 3사가 매출 1~3위를 독차지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지난해 매출이 3조원을 돌파하며 2011년 1301억원보다 2.4배 증가했다.



**2배 빠르다** KT는 카페, 영화관, 백화점, 아파트단지 등 주요공공장소에서 서비스중인 기존 GIGA WIFI보다 2배 빠른 1.73Gbps의 속도를 제공하는 'GIGA WIFI 2.0'을 22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도 지난해 매출이 7476억원으로 같은 기간 4배, 볼보자동차코리아는 1727억원 매출을 올려 3배 성장했다. 이처럼 수입차 업체들은 일제히 매출과 수익이 크게 늘었지만 기부금 규모는 적어 국내 사회공헌에는 인식 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총 매출 11조원을 올린 이들 업체가 기부한 금액은 44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은 0.86%로 2011년의 1.35%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벤츠코리아가 지난해 20억5000만원

으로 가장 많았고, BMW코리아 18억 1000만원, 한국도요타가 2억3748만원, 한불모터스 2억1000만원 등이었다. 피아트와 크라이슬러를 수입판매하는 FCA코리아와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011~2015년까지 회계장부상 기부금이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이 줄어든 업체들도 있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3~2014년 영업이익의 0.3% 비율인 2억여원 씩을 기부하다가 지난해에는 이마저도 없었다. 한국닛산은 2011년(1600만원)부터 2014년(1조4799억원)까지 매년 기부금을 늘리다가 지난해에는 기부금이

없었다. 혼다코리아도 2011년 650만원이었던 기부금을 2014년 3041만원까지 늘렸다가 지난해 142만원으로 삭감했다. BMW코리아가 사회공헌 재단인 '미래재단'을 포함하면 지난해 총 기부금이 40억원에 이르고, 벤츠코리아와 한불모터스가 기부금을 각각 2014년보다 2배, 40배 늘린 것과 대조를 이뤘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업체들이 기부를 늘리고는 있지만 아직 소극적이다"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부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뉴시스

# 애플워치, 출시 1년만에 판매량 '반토막'

지난 2분기 160만대 · 지난해 비 55% 줄어... 삼성기어 51% · 모토 360은 75% 늘어

'애플워치'가 출시 1년 만에 시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월가에서는 지난 1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애플의 '블락' 가능성을 대한 우려가 더욱 확산된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보·기술(IT) 정보재공업체 IDC의 애플워치 판매량 발표를 인용해 지난 2분기 애플워치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반 토막이 나면서 월가 투자자들 사이 애플의 전반적인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IDC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애플워치 판매량은 160만대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360만대)에 비해 55%나 줄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인 삼성기어와 모토로라의 모토 360의 판매량이 각각 51%, 75% 늘어난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애플워치는 지난해 4월 출시된 지 1여년 만에 애플 제품치고는 매우

빠른 속도로 판매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애플워치는 쿡 CEO가 취임한 뒤로 처음으로 내놓은 역작으로 시장의 상당한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시장전문가들은 시장 기대와 애플 브랜드 가치, 애플 아이폰의 첫째 판매량 등을 감안해 애플워치 출시 첫해 1200만대 가량이 팔릴 것으로 내다봤었다. 하지만 현재 애플워치의 판매량은 이를 크게 밑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DC의 라몬 라마스 연구원은 "2분기 판매량이 부진했지만, 애플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14년까지만 해도 스마트워치 시장을 선도했지만, 애플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1년도 안돼 전세가 뒤집혀 2위로 밀려나 바 있다. 그러나 지난 해까지만 해도 스마트워치 시장 72%에 달하는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최근 47%로 줄어들어 시장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 1분기 애플이 13년만에 처음으로 매출하락을 발표하면서 '애플의 블락' 우려가 번지고 있어 이번 판매량 감소가 애플 주가에 더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뉴시스

## '꿈을 이어주는 (무)교보연금보험' 노후 준비에 유가족 생활보장까지 생존연금 지급 중 가입자 사망시 유가족에게 20년간 제공

교보생명명은 노후 준비에 유가족의 생활보장 혜택까지 강화한 '꿈을 이어주는 (무)교보연금보험'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생존연금을 평생 지급하다가, 가입자 사망시 생존연금과 동일한 연금액을 유가족에게 20년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금을 개시한 후 가입자가 조기 사망하면 총수령액이 낮아지는 종신연금의 단점을 보완해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돕는다. 연금수령 후에도 가족의 상황에 따라 유족연금 수령자를 최대 3명까지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장점이다. 민영 연금보험으로는 처음으로 직역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의 유족연금 개념을 도입한 이 상품은 최근 혁신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상품을 만기까지 유지하면 그동안 쌓인 적립금의 최대 7.5%까지 보너스 연금으로 지급한다. 보너스 연금은 은퇴 후 소득공백기에 5년간 집중해서 받거나, 수령을 미뤘다가 고령이 노후자금에 더 많이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 사망시 배우자나 자녀에게 새로운 연금으로 계약을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승계된 계약은 연금으로 활용하거나, 연금개시 전 별도의 수수료 없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찾아서 교육자금으로 쓸 수 있다. 납입면제 혜택도 대폭 강화했다. 80%이상 고도장애시,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질병 발생시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이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는 자녀 교육지원 서비스인 '교보에듀케어서비스1318'도 지원한다. /뉴시스

## 한은, 57명 승진, 국·실장 16명 교체

통화정책국장에 박종석 전 정책보좌관·전태영 여성 국장 탄생

한국은행이 22일 1급 7명 승진 등 총 57명을 승진하고 국·실장 16명을 교체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6년 하반기 인사'를 단행했다. 한은은 이번 인사에서 본부 국·실장 26명 중 16명을 교체했다. 한은 내에서 가장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통화정책국장은 박종석 전 정책보좌관이 이름을 올렸다. 경제통계국장 및 인사경영국장에 각각 정규일 전 국제협력실장과 정길영 전 법규제도실장을 앉혔다. 국제국장에는 외환정책·외화자산운용 등 국제금융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서봉국 전 공보관을 보임했다. 금융안정국장은 안정총괄팀장 출신으로 동 분야 전문가인 신호순 전 금융시장국장을, 금융시장국장은 통화안정정책 및 조사연구 분야의 업무경험이 풍부한 이원석 전 금융통화위원회위원장을 보임했다. 한은은 국제협력실장에는 국제기구(MIF) 파견 등 경험이 풍부한 박찬호 전 국제금융부장을 내세웠다. 신설된 전자금융부장에는 이종렬 전

##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